

승리의 하나님

신학박사 조 덕운

[요한계시록 6:9-17]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10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이까? 하더라. 11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12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13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14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며, 15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16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17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제 1 세기에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본 이 광경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외치기를, “주여 우리의 피에 대한 복수를 언제까지 늦추시려 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수 많은 의인들 역시 이분들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시행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승리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 대하여 가지신 진노를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사악한 세력들이 지역사회에서, 국가 통치권력에서,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제한 없이 시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곧 올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다가오는 종말의 시기에도 온전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도록 하는 이적을 통하여 자신이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데, 이 기적은 지역적 규모의 기적이었습니다. 노아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악한 세상에 대해 진노하심을 대홍수를 통하여 보이셨는데, 이는 전지구적 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에 읽은 계시록 6 장 12-17 절에 미리 계시된 하나님의 진노의 발현은 지구 전체 뿐 아니라 온 우주에 걸친 우주적 스케일의 진노 발현일 것입니다. 창조 이후에 이런 큰 규모의 진노의 이벤트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진노 실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의 희생에 대한 복수를 하나도 남김 없이 철저히 시행하실 것입니다.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승리하셨으며 지금도 승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보이지 않겠지만, 믿는 현자들의 눈에는 인류 역사의

매 세대를 통하여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여덟명이 방주를 건설하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들이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물이 불어나 자신들의 집과 농토와 사업처들과 동네들을 범람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곧 깨닫게 되었을 것이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여 그들이 아카바 만의 좁은 곳에 갈곳 없이 모인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을 멸살시키겠다고 분노에 넘쳐 추적의 속도를 높였겠지요. 그러나 갈라진 아카바 만의 바닷물 사이로 그들이 건너가는 뒤를 추적하던 파라오는 바닷물이 합하면서 자신의 군대가 몰던 마차들과 군사들이 물속에 잠기게 되면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웠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곧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지요. 파라오 역시 아카바 만에 수장되었고 그가 몰던 마차의 금바퀴가 수년전 바닷물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의 골고다 언덕위에서 나사렛 출신 가난한 전도자 예수가 십자가 위에 못박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때에 로마 군사들과 불신자 유대인들은 바아냥거리면서 그분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는 사흘째에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서 수백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40 일동안 가르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주일 후에는 수천명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23 억명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과 백성들과 이 땅에 있는 왕국을 통하여 승리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온 피조물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매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신하는 자들은 이러한 분명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전 우주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할 때에 불신하는 세상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그리스도의 시선을 피하려는 생각에 굴속, 땅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진노를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런 행위를 할까요? 그들이 자의적으로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심지어 대적하여 그분과 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15-17]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16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17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종말의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펼치는 최종 단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모인 전 세계의 연합군, 즉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추종 세력의 군대를 단번에 멸살하실 것입니다. 이 최종 승리를 달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왕중의 왕, 온 세계의 통치자로 임재하시고 천년동안 온 세상을 그의 선택하신 충성된 종들과 더불어 통치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11-16]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니라. 12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13 또 그분께서 피에 담긴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니라. 14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15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16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이 위대한 전쟁 승리는 현재 이 세상에 준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그가 섬기는 사탄이 지휘하는 군사력의 연합체에 대한 승리입니다. 성도들은 계시록을 읽고 다가오는 종말의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계시록에 미리 예언된 그대로 이 엄청난 세계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임을 알고 마음에 격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매일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모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도록 지성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항상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지 못하시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능력과 권능과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과 수단이 부족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항상 확실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사악한 세력이 기승부리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그러한 권세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발현되고 있는 악의 대부분은 인간의 선택의 결과로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아직도 참된 진리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정직한 영혼들에게 뻗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간이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쪽에 서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큰 가족의 편에 서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날에도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참으로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직 불신자들에게 미치고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소서. 그들이 왕중의 왕, 주들의 주로 오실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아오게 그들을 도와 주소서. 주 예수님,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시고, 대적들의 세력위에 크게 승리하시고, 천년 왕국의 통치자로 권좌에 올라 온 세상을 통치하소서. 아멘.”

www.douglaschoministry.net

여러분의 재정적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Douglas Cho Ministry, PO Box 501, Cross Junction, VA 22615
Or Paypal to dwcho4771@gmail.com
한국: 신한은행 110-008-655930 [조덕운]